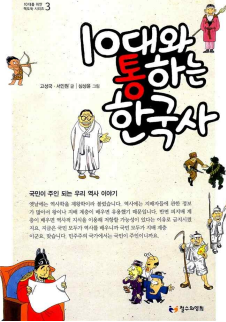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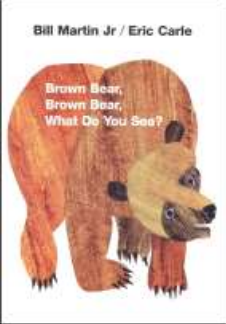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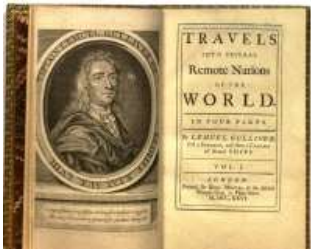
추천 금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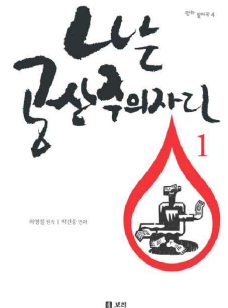
- 어제의 금서가 오늘의 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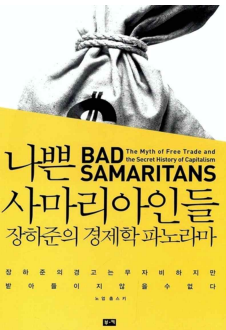
2015. 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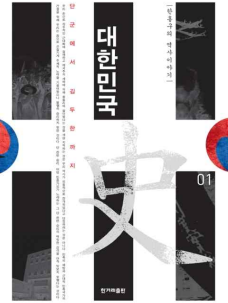
※ 계속 업데이트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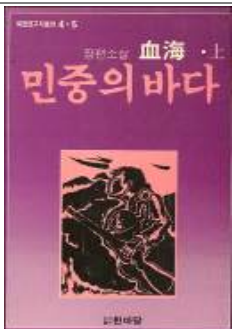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1	 10 통하는 한국 전쟁 이야기	이임하	이 책은 최근 언론에서 한 특정 단체가 사실 왜곡과 좌편향적 내용이 담겨 있다고 비판하며 거론한 책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이 실제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음은 인터넷 포털 검색만 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책은 역사를 단순한 암기과목으로 치부했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현재의 삶에 끊임없이 되돌아표가 되고 있는 '한국 전쟁'을 더 이상 박제가 아닌 살아 있는 인간의 아픔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 - 김대경(성수고등학교 교사)
2	 10대와 통하는 한국사	고성국	우리 민족이 5000여 년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왔는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늘 승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럽고 얼룩진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보여준다. 우리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답을 통해 풀어내고 있어 역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배현영(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
3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	빌 마틴 주니어 글 에릭 칼 그림	운율이 살아있는 전래동요 풍 글에 맞추어 콜라주에 의한 조형성과 색감 뛰어난 동물들이 차례차례 등장하는 이 유아 그림책은 그야말로 유아가 동물 이름과 형상을 익히기에 더없이 좋다. 1967년에 출간되어 수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그림책이 2010년 1월 텍사스 교육위원회에 의해 느닷없이 금서로 지정된 이유는 글 작가 빌 마틴 주니어 William Ivan Martin, Jr. (March 20, 1916 – August 11, 2004)의 이름이 좌파 철학자 빌 마틴(1956-, 데리다, 사르트르, 마르크스주의 연구자)과 같기 때문이었다. 이 교육위원회의 누구도 이들이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 이상희(시인, 그림책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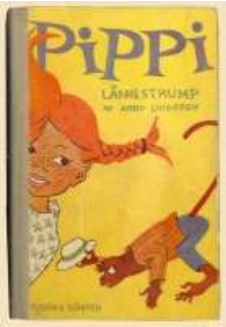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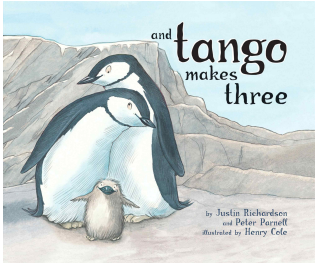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4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
			1992년 '국내최초 무삭제 완역'이라는 완장을 두른 따끈한 책을 손에 들고 흥분하던 기억이 있다. <걸리버 여행기>가 우리나라에서 금서였던 적은 없다. 완역되지 않았을 뿐. 동화의 형식을 빌어 작품을 부분만 출간해 온 것은 문학과 독자에 대한 기망이었다. <걸리버 여행기>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불온한 문학이다. - 오혜자(초롱이네도서관 관장)
5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글, 그림
			늑대 분장을 한 채 포크로 강아지를 위협하고 벽에다 함부로 못을 박으며 노는 개구쟁이 맥스가 엄마에게 '괴물딱지 같은 녀석'이라고 꾸지람을 듣자 '(내가 괴물딱지라면)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라고 대든다. 별로 자기 방에 갇히지만,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멀리 멀리 떠나 신나게 놀고는 왕으로 추앙받는 상상을 즐기다 엄마가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밥 앞으로 돌아온다. 1963년 출간 당시 미국의 교육학자들은 이 책이 '예뻐장하고 귀염성 있는 주인공과 자상한 엄마가 등장하는 그림책의 전형을 훼손했다'며 금서로 지정했다.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19만 권(2009년 기준) 이상 판매된 '현대 그림책의 고전'으로서, 1964년 칼데콧상을 수상하고, 2012년 미국 <스쿨라이브러리 저널>의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그림책'으로 선정되었다. - 이상희(시인, 그림책작가)
6		국토	조태일
			조태일(1941~1999) 시인의 시집 『국토』는 유신시대의 금서였다. 조태일은 1980년 '광주민 주화항쟁'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했었는데, 5공 시절에도 그의 시집은 당연히(!) 금서 목록에서 풀리지 않았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에는, 당시 금서로 묶인 조태일의 『국토』를 비롯한 시집들이 국문학도들에게 은밀히 복사되어 읽혀지기도 했다. 독재정권에 의해 '금서(禁書)'로 지정되었으나, 오히려 국문학도들에게는 '금서(金書/錦書)'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나의 서가에는 당시 복사하여 책으로 만들었던 시집 『국토』가 꽂혀있다. 이 시집에 실린 '국토' 연작은 "삶의 뿌리를 박고 사는 내 국토의 역사와 현실을 꿰뚫어보며 시대정신"을 절절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용찬(순천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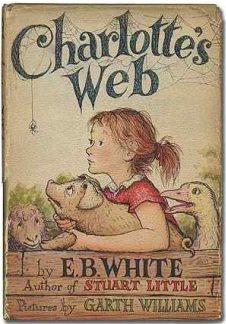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7		그림 형제	독일 그림형제가 민담을 수집해서 묶은 그림동화책은 너무 잔혹하고, 독일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다. 주인공 여성들 성격이 너무 순종과 침묵형이라는 비판도 있다. 남성 중심이긴 하지만 봉건군주 눈으로 볼 때는 시민성도 엿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형제가 독일 지폐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고, 170여 개 나라에서 번역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꾸준히 읽는 동화가 되었다. -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8		깊은 밤 부엌에서 모리스 샌닥 글, 그림	아기 미키는 잠들려다 말고 쿵쿵거리는 소리에 깨어나 아침에 먹을 빵을 굽느라 분주한 빵집 아저씨들의 반죽 그릇으로 떨어져 내린다. 미키가 들어가 있는 반죽을 오븐에 넣으려는 참에 미키가 모습을 드러내곤 자기는 '밀크'가 아닌 '미키'라며 반죽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타고 달아난다. 조리사 아저씨들은 밀크가 필요하다고 쫓아오고, 미키는 미키웨이-밀키웨이(은하수)에 가서 정말 밀크를 구해 온다. 마침내 빵이 구워지고, 아저씨들은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고, 미키는 제 침대로 돌아간다. 이 그림책 또한 1970년 출간되자마자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주인공 사내 아기가 나체로 등장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금서 목록에 오른 것은 물론, 도서관 사서들이 검은 사인펜으로 기저귀를 그려 덮거나 테이프를 붙였고, 심지어 불태우기도 했다. 1971년 칼데콧 아 상 수상 이후 주목할 만한 어린이책상, 최고의 어린이책 그림 원화상 등 수많은 상찬을 받았다. - 이상희(시인, 그림책작가) 모리스 샌닥의 <깊은 밤 부엌에서>에는 어린 소년 Mickey가 "발가벗은 채" 커다란 밀가루 반죽 그릇이나 우유병 속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환상적인 장면이 들어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장면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었고 전미국도서관협회나 초등학교 도서관의 금서 목록에 빈번하게 올랐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환상의 날개를 품은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해 줌으로써 세계적인 그림책 고전이 되었다. - 조은숙(어린이책비평가)
9		나는 공산주의자다 1-2 허영철 원작 박건웅 만화	남파 간첩으로 체포되어 비전향 장기수로 36년을 감옥에서 살았던 허영철의 회고록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가 원작이다. 만화가 박건웅의 선 굵은 그림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한 인간의 굴곡진 삶을 잘 드러낸다. 허영철은 자신이 겪은 전쟁과 분단, 사상에 대한 신념을 담담히 들려준다. 책을 통해 분단전쟁 전, 후, 현재까지 남과 북의 인식차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 김라영(어린이도서관연구회 목록위원장)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10		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귀국 직후인 2002년이었던가, 강연차 부산대에 갔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한 청년이 군 복무 중에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때문에 영창에 끌려갔었다는 사연을 말해 놀란 적이 있다. 한 사병이 휴가에서 돌아오면서 그 책을 가져왔는데 반입금지라고 옥박지른 상급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게 명령불복종이 되어 영창에 가게 됐다는 것이다.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 때의 일이었는데 그 뒤 이명박 정권의 국방부는 아예 불온도서라며 군대 내 반입금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불온도서로 지목된 책 중에는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현기영의 『순이 삼촌』, 장하진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히 엽기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심각한 일은 한국의 사법부가 군부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부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몰상식이 판치는 사회에서 불온이 오히려 상식이 되고 나아가 교양이 된다는 점을 21세기 한국이 가르쳐주고 있다. - 홍세화(장발장은행 대표)
11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이 책은 국방부 금서목록에 올라 유명해진 책이다. 경제학은 결코 딱딱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날카롭게 보고 그 맥락을 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세계화, 민영화, 자유 시장경제 등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개념들을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흔들어준다. 결론은 강대국 위주의 세계경제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인데, 왜? - 이덕주(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부대표) 경제서적을 읽고 싶는데 어려운 경제용어로 힘들어 하는 경제학초보독자에게 권한다. 공동체, 협동조합, 함께 살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 딱 필요한 책이다.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낸다. 사례와 통계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책은 경제학 관련 내용이지만 풍부한 자료들로 지루하지 않게 읽힌다. - 배수진(대림중학교 사서)
12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알다시피 백석은 대놓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반체제 혁명가도 아니다. 김소월이나 윤동주처럼 북한을 고향으로 둔 시인으로, 김소월을 깊이 흠모하고 윤동주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친 맑고 섬세한 영혼을 지닌 시인일 뿐. 그러나 백석은 김소월이나 윤동주와는 달리 한국전쟁을 겪어야 했고 그때 자신의 고향인 북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모든 글들은 1987년 해금이 될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야만 했다. 1997년 시와사회에서 펴낸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내 손에 쥐던 날, '어쩌자고 이토록 아름다운가!'를 연발하며 밤새도록 가슴 시큰거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누구도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어둠에 가둘 권리는 없다. 그렇지 않은가? - 백화현(독서운동가)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13	 너하고 안 놀아 현덕	안 놀아 현덕	1938년에 쓰였으나 해방 후 좌익 월북 작가의 작품이라는 미명하에 금기시 되었다가 1988년 정부가 월북문인에 대한 해금조치를 한 후에야 만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문학이 어린이가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존중해주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정부의 검열로 인해 소중한 작품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 한 것이다. 『너하고 안 놀아』에 담긴 작품들은 방정환이 모든 사람을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라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로 구분하여 동등하게 존중해야한다고 했던 ‘어린이’를 잘 담고 있다. 여느 골목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아이들 노마 영이 기동이 똥똥이가 생활하는 모습에서 어린이는 놀면서 배우고 자연과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즐겁게 경험하게 된다. -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14	 달려라 냇물아 최성각	달려라 냇물아 최성각	국방부가 배포한 ‘불온서적리스트’ 중 ‘반자본주의’ 항목에 들어 있는 생태에세이다. ‘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목살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폭력에 저항하’고 ‘그들이 감추려는 진실을 드러내면서 오랜 시간 ‘평화로운 환경운동’을 지향해 온 작가가 신자유주의의 세계지배 속에서 민중뿐 아니라 ‘자연’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능욕당해 왔는지 생생하게 고발한다. - 김정숙(마곡중학교 교사) 스스로 환경운동을 하는 글쟁이라 칭하는 최성각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등의 상투적인 글을 늘어놓지 않는다. 그는 모든 생명을 품은 자연에 ‘존경심’을 가지고 돌맹이 하나에도 존경을 표한다. ‘생명’이 인간의 사용가치에 따라 이용되어 파괴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자존감마저 파멸되는 세상에 탄식한다. 최성각은 ‘무분별한 개발’로 이익을 취하여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탐욕스런 자들에겐 매서운 시선을 보낸다. 권력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한 최성각을 통하여 종이컵 하나에도 마음 아파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현대인들이 일깨울 수 있었으면 한다. - 이수아(혜화초등학교 사서)
15	 대한민국史 1-4 한홍구	대한민국史 1-4 한홍구	모두 4권으로 이루어진 한홍구의 『대한민국史』는 단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오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와 그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선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대한민국 역사를 진실의 거울로 다시 조명하여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믿고 있는 현실의 기반을 명쾌하게 보게 한다. 그저 앞만 보고 걷는 우리사회에 의구심을 품어보자! - 김형애(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16			조반니 보카치오	어렸을 적에 읽은 『데카메론』은 음란한 대목이 술술 등장하는 '하드코어 야설 모음'이었다. 여기에 신랄한 교황청 비판까지 담겨 있으니 금서가 되어도 억울할 것이 없으리라 확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조금 더 다각도로 심도 있게 읽기 시작했을 때 『데카메론』은 엄청난 혁명으로 다가왔다. 진보적 페미니스트들조차 놀랄 만한 시각의 근대성이 담긴 웅장한 열 편의 혁명곡이 바로 『데카메론』이었던 것이다. 머리말의 제목 또한 "세상의 구원을 갈망하는 여성들에게"다. 『데카메론』이 있었기에 신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과 여성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 있었다. 『데카메론』은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어 근대의 여명을 밝힌 혁명서다. 『데카메론』을 금서가 되어도 마땅하다고 오해했던 어린 시절의 나는 분명 맹목의 위험이었다. - 허병두(승문고 교사, 책따세 이사장)
17		몽실언니	권정생	『몽실언니』는 100만 부를 넘어서고, 10여 개 나라에서 번역되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잡지에 연재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검열에 걸렸고, 1회 분이 통째로 잘려나가면서 작가 구상대로 쓰지 못한 절름발이로 태어났다. 1986년에는 국가정보기관 입김을 받은 단체에서 용공동화 사례로 언론에 발표하고, 문교부에서는 학교도서관에서 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 동화를 읽은 사람들은 몽실언니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시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몽실언니는 고난의 역사를 짊어져야 했던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감싸 안고 살아온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위태로운 걸음으로 불쌍한 동생들을 등에 업은 몽실언니는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남습니다. 몽실언니를 통해 참된 사람살이와 인생의 길에 대해, 생명을 보살피는 존재가 왜 위대한가를 가슴으로 읽습니다. - 정봉남(순천기적의도서관 관장)
18		민중의 바다	명불상	북녘에서 1980년대 나온 책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썼어요. 북녘에서는 『피바다』라는 책 이름으로 나왔지요. 일제 강점기에 조선해방을 이루려고 싸우는 아들을 따라 어머니도 투사가 된다는 글이에요.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에게 밥을 주지요. 아들이 어머니 밥은 어디 있냐고 하니까 부엌에 가서 빈 그릇에 손가락으로 달그락거리며 밥 먹는 것처럼 속이지요. 난 그곳을 읽으며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끼며 울었지요. 책을 읽으며 운 일이 잘 없는데 그 책을 다시 읽고 싶네요. 지금은 한반도 남북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이적도서이니.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은 이렇게 남과 북에서 낸 책을 서로 마음껏 읽는 것에도 있지 않나 싶어요. - 은종복(책방 '풀무질' 일꾼)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19		롱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1945년 동화 『삐삐 롱스타킹』이 출간되었을 때, ‘삐삐’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 “이런 말썽쟁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착한 어린이들이 나쁜 아이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당시의 평가는 어린이 독자의 선택과 판단은 무시한 채 가르치려고만 하는 어른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결과다. ‘버르장머리 없고 학교와 부모도 거부하며 괴력까지 지닌 위험한 아이’의 등장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흐른 지금, 린드그렌은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이며, 말괄량이 삐삐는 영원한 친구이자 우상이다. 아이들은 삐삐를 통해 답답한 현실을 위로 받고 할 테고, 친구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배우기도 할 것이다. 나와 내 친구들이 어린 시절 만난 삐삐를 마음에 품고 조금씩 성장했던 것처럼. - 심명선(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20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 저스틴 리처드슨, 피터 파넬 글 헨리 콜 그림	수컷 펭귄 로이와 실로는 서로를 무척 좋아해 늘 함께 지내지만, 다른 펭귄 부부가 수북이 낳는 알을 한 개도 낳지 못한다. 이들의 갈망을 눈치 챈 사육사가 임자 없이 굴러다니는 펭귄 알 하나를 내어주자 둘이 열심히 품은 끝에 아기 탱고를 얻게 된다. 셋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센트럴파크 동물원의 실화로 만들어진 이 그림책은 2005년 출간 이후 게이 커플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과 학부모가 주관하는 금서 목록에 가장 많이 올라있다. 반면에 입양에 의한 새로운 가족을 구현한 따스한 그림책으로 찬사를 받는다. - 이상희(시인, 그림책작가)
21		사슴 백석	백석 시집 <사슴>은 백석이 월북작가로 분류되는 바람에 1988년 해금될 때까지 금서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석은 월북 작가가 아닙니다. 고향이 북쪽이라 그냥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북작가인 것이지요. 문제가 될 만한 이념적인 내용을 담은 시는 한 편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하는 시인 1위입니다. 올해 경매시장에서 시집 <사슴> 초간본이 7천5백만원에 낙찰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도종환(시인, 국회의원)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22		거미줄	엘원 부룩스 화이트
23		세계화의 덫	한스 피터 마르틴
24		섹스북	귄터 아멘트

1952년 출판되고 1953년에 뉴베리 아너상을 받기도 한 《샬롯의 거미줄》은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간의 우정을 다루며 생명사랑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미국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날마다 한 단원씩 읽어주면서 읽어주기의 신비한 힘을 알게도 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다. 하지만 죽음을 다루고,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냐는 등의 일부 어른들의 문제제기로 아이들에게 읽히기 적당하지 않다고 금지도서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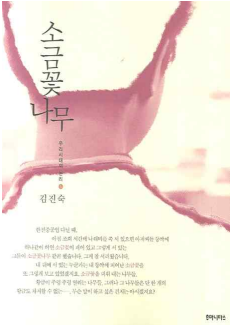
- 김경숙(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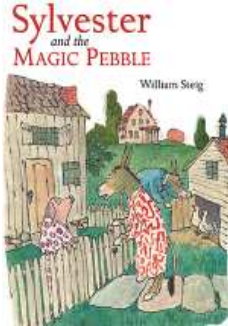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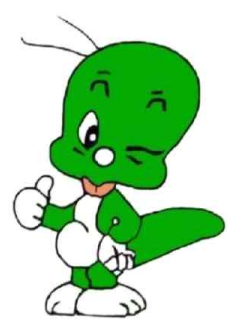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IMF 구조조정의 폐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분석한 책이다. 한국 IMF 사태 직전에 번역되어 IMF내내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판검사에게 권장한 책임에도 국방부 금서목록에 오르는 등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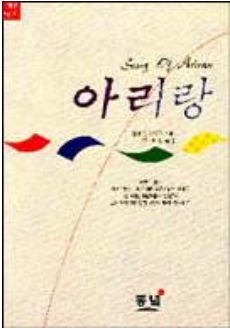
- 강수돌(고려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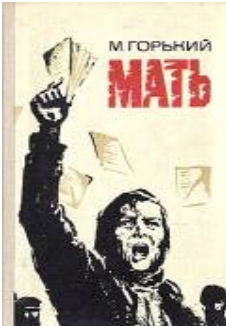
90년대 초 대학가 앞은 경찰의 몸 뒤집이 횡행했다. 수업교재로 쓰이던 '막스 베버'의 책은 '맑스'로 오인 받아 잡혀가고, 정작 맑스의 『자본론』은 제목 덕분에 유유히 통과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삼엄한 풍경 속에 떠돌아다녔다. 그 바람에 내가 읽는 책이 정부나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숨죽이는 버릇이 강화됐다. 귄터 아멘트의 『섹스북』은 관점도, 구성도 흥미진진한 독일의 청소년용 성(性) 사회학 책이었지만, 20대 중반에도 '까인 여자'로 보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이런 훌륭한 책이 금서라니!'가 아니라 '금서를 선별하는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가서야 권력이 내 안에 심어놓은 두려움을 조금씩 몰아낼 수 있었다.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25		김진숙	소금꽃은 땀 흘린 이들의 등쪽에 피어나는 꽃이다. 이른 봄 피어나기 시작해 늦가을이 되어서야 서럽게 지는 꽃. 한진중공업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이후 노동운동가로 살고 있는 김진숙이 썼다. 이 세상 온갖 재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이면서도 단 하루도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노동자들. 그 소금꽃나무들의 고달픈 삶과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 신은영(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
26		앤시 가든	원 제목은 '내 마음의 애니 Annie on my Mind'인데 미국에서도 여러 번 불태워진 책이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하지만 제목에서부터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고 중·고등학교도서관에는 들여놓기 난감해하는 사서들도 있다. 이 시대에도 동성애를 소재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혹은 도서관에서 거부당하는 책이다. 중산층의 건강한 부모와 함께 살고 좋은 학교에 다니는 리자는 애니를 만나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고 주변의 편견뿐 아니라 자기와도 갈등을 겪게 된다. 책이 '타자'와 만나는 열린 창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통해 리자의 경험을 독자도 누리게 될 것이다. - 변춘희(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27		순이 삼촌 현기영	문학이 사회적 진실을 발설하는 장치라면, 이 소설집이 감당한 작업은 거의 발굴이라는 이름에 값한다. 30년 동안 매몰되었던 한국판 홀로코스트의 현장, 제주도에서 저질러진 인간 말소의 기억을 복원해낸 첫 시도였기 때문이다. 발뺌기에 버려진 죄 없는 주검 더미가 거름 역할을 한 덕에 그해 풍작을 거두었다는, 이 소설집 한복판에 놓인 비극적 아이러니는 그대로 우리 현대사 전체의 쓰라린 표상이다. 불과 몇 년 전, 역시 고향 제주의 기억을 다룬 이 작가의 다른 소설은 병영 속 '제복 입은 시민들'에게 읽혀서는 안 될 책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는 '문학 이후'가 아니라 아직도 문학 이전에 있는지 모른다. - 손경목(문학평론가) 정치적 폭력이, 아픈 역사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 '순이 삼촌'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제주 4.3 사건'은 아이들이 잘 모른다. 역사시간에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의에 항거하며 빼앗겼던 수많은 제주도 주민들의 아픔과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한다. 정부가, 국가가 개인에게 향한 이러한 폭력을 기억하며 아픔을 보듬고 끌어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조수진(관악중학교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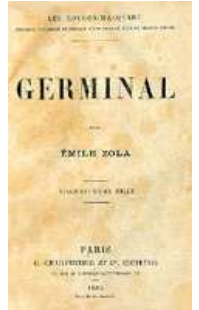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28		신동엽	<신동엽전집>은 단순한 시전집이 아니다. 당시에 놀랍고 선동적인 시사상이었겠지만, 지금 봐도 그 시적 예지와 혜안이 경외스럽다. 그래서 잘 알려진 서사시 <금강>과 <껌데기는 가라>, <산문시 1>에만 눈 두어선 곤란하다. 그의 시 편편마다에는 전통과 현대성, 뜨거운 감성과 깊은 사유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유신의 패악도 깜짝 놀라 금서에 올릴 만큼 정신을 뒤흔드는 시편들이다. - 정우영(시인,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29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윌리엄 스타이그	조약돌 모으길 좋아하는 어린 당나귀 실베스터는 숲에서 주운 요술 조약돌에 주문을 잘못 거는 바람에 바위가 된다. 부모는 몇날 며칠 온 마을을 뒤흔 끝에 실베스터 찾기를 포기한다. 기나긴 슬픔을 이겨내려 숲으로 소풍 나간 부모는 우연히 바위 실베스터 가까이 가게 되고, 바로 그 요술 조약돌을 바위가 된 실베스터 위에 놓음으로써 가족 모두 불행을 벗어난다. 이 그림책은 경찰이 돼지로 묘사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1969년 출간 당시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금서가 되었다. 다음 해 칼데콧상을 수상했다. - 이상희(시인, 그림책작가)
30		아기공룡 둘리 김수정	아기공룡 둘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는지? 당시 어린아이가 모자를 빼딱하게 쓴다거나 어른에게 말대꾸하면 검열에서 잘렸다. 김수정 작가는 고민 끝에 동물을 그렸다. 그게 둘리다. 그러나 둘리마저도 시민단체로부터 불량만화의 대명사로 지탄받았다. 아이들 버릇이나 빠진다는 이유다. 시민단체가 이랬으니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만화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멈춰서 보자. - 박재동(만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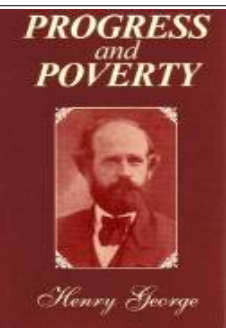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31		님 웨일즈	80년대는 “사자들의 시대”였다. 길거리에 사자들이 돌아다녔다. 사자들은 서울 거리에도 많았지만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에도 많았다. 대도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지리산에 올라가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내 앞에 사자가 앉아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일도 있었다. 이런 사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님 웨일즈가 쓴 장지락이라는 사자의 이야기를 읽은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사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사자들이 당시의 독재 정권과 싸우는데 앞장 선 것은 물론이다.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사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 이영준(경희대학교 교수) 헤겔은 “역사의 발전은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고 하였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이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금서의 주인공이었던 혁명가 김산, 정부가 그에게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을 추서한지도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무엇이 변화되었고, 발전하였는가? 개인의 삶이든 사회의 역사든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패배하고 싶지 않은” 젊은이에게 <아리랑>을 권한다. - 이정수(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관장) 아리랑은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민족해방 투쟁에 온 생을 투신하였던 너무도 순결한 한 영혼의 기록이다. 10대의 몸으로 독립 투쟁에 헌신하기 위해 망명의 길에 나섰던 그는 만주 별판의 혹한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아 준 집안의 처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투신해야 할 투쟁의 길을 떠난다. 젊은 그에게 다가온 독립 투쟁의 길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연속이었다.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행로를 잃지 않았던 그의 삶 자체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 차별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영영 울면서 공감했었다. 80년 광주를 21살의 젊은 나이에 마주했던 당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치욕이었던 내게 삶이 어떻게 모욕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었다. 김산은 일제가 기세등등하여 독립 투쟁이 승리하리라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열정과 지성의 힘을 온전히 갖추었던 그 시대 청춘의 전형이었다. 김산의 삶은 억압의 공포로 인간을 굴종시킬 수 있다는 거대한 어둠에게 정의와 진실의 빛은 결코 꺼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가 안타깝게도 일제의 간교한 '밀정을 만들어 내부 숙청을 이끌어내기'라는 뜻에 걸려 끝내 처형되고 마는 비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당시 청춘들은 그것을 패배로 생각하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지닐 수 있게 되었고, 김산이 생을 불살라 피운 꽃을 삶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으로 지금껏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리랑은 암울했던 시기에 정의를 향한 열정과 용기, 희망을 일깨워 주었던 내게는 등대와 같았던 책이다. - 이성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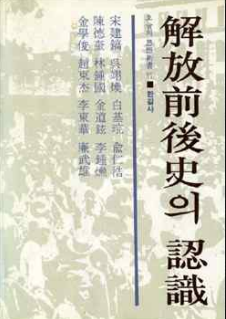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32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어떤 책은 사람을 바꾸고 어떤 책은 역사를 바꾼다. 한국에서 역사를 바꾸는 데 기여한 책은 많겠지만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평전>이야말로 그런 책들 중에 가장 앞자리에 놓일 책이다. 이 책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전태일에 비해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전태일의 말과 행동이 젊은 영혼들의 양심에 천둥 번개처럼 불을 질렀던 이 책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강력한 질문, 우리들의 양심을 후벼 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 이영준(경희대학교 교수)
33		어머니	막심 고리끼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끈 쥐어지는 주먹과 끓어오르는 심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또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억압당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20세기 러시아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에서 다시 읽어도 『어머니』가 공감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가장 깊은 바닥에 내재해 있는 어머니의 모성과 인권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모성과 인권의 문제가 모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고전으로 오래토록 읽혀져야 할 이유이다. - 문선영(영화인)
34		열하일기	박지원	조선 정조 때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1780년, 청나라 방문 사신단에 끼어 의주에서 북경까지를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여행기이다. 호방하고 유려하고 풍부하며 화려하고 곡진함을 어우르는, 보물창고 같은 작품이다. 다만 한문 작품이라 번역에 따라 글맛에 많은 차이가 있고, 연암이 도달했던 고전의 깊이를 언저리나마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다면 글 곳곳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보석같은 비유나 은유, 풍자를 놓칠 수 있다. 친절한 해설을 보태어 꼼꼼히 공부해가며 읽는다면 조선 선비가 도달했던 최고 문장의 맛에 빠져들어 갈 것이다. 조선시대에 금서였던 책이다. - 김종욱(작가)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35		김지하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랴다.” 이렇게 시작하는 김지하의 담시 「오적」(1970)은 서울 장안의 다섯 도적(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 도둑질 경연을 펼친다는 설정을 통해 부정하고 부패한 현실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2015년 대한민국 현실은 새로운 「오적」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닐까. - 최재봉(한겨레신문사 기자)
36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안건모 외	과거의 역사가 왜 되풀이 되는지, 여성에게 사회적 평등이 왜 필요한지, 한미 FTA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노동운동이 중요하고 불평등에 저항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을 한 내용을 그대로 말로 풀어서 책으로 나왔다. 고등학생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읽어 낼 수 있는 책이다. 하종강은 말한다.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에 제대로 된 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 이원경(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37		하느님	권정생 선생님 책이 금서였던 나라.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듯 흐르는 강이었다가, 강아지똥이었다가, 흙이었다가, 권정생은 또 하나의 우리들의 하느님이다. '서로 보살 피고 상부상조하는 인간적인 유대 가운데서 삶의 근원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글로 보여주신다. 이 책을 만난 뒤로 소중한 인연을 맺은 분들에게 선물하는 책이다. - 손은경(대감초등학교 교사)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문턱을 넘으면서 교회라는 좀 특별하게 지어진 건물과 검은 색의 두꺼운 성경책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이라는 것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어른이 되면서 뭔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 둘 더해져 내 욕망을 구하는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기에 '구하면 얻으리라'라는 말이 정겹고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우리들의 하느님>을 만났다. 권정생 선생님은 책머리에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과 그리고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 모두가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보셨나요?' 한다. 이게 뭔가. 뭐든 구하면 얻을 거라면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기도제목으로 놓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하느님>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서가 아닌 내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게 하는 책이었다. 그때까지 교회에서 배운 게 전부가 아니었다. 아니 반전이였다. 그때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저항이고 의심에 이어 질문을 품게 되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를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이 책이 2008년 '반정부 반미'를 조장한다며 국방부 금서가 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미국은 반기독교임이 분명함과 동시에 제 잇속만 챙기면 살라고 조장하는 것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육용희(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38		전환시대의 논리	80년대 초반,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학교는 술렁거렸다. 언제든 학교 안까지 경찰들이 몰려들어오고 선배들은 그 엄혹함 속에서도 책을 읽고 토론하고 시대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몰래 가리방(?)을 굶어 인쇄물을 만들고 어두워진 골목을 누비며 가슴에 품은 유인물을 집집마다 꽃고 사라지는 일들을 반복했다. 광주민중항쟁의 핏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시절이었으므로... 진실을 알리는 그리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알 길이 막혀 있던 그 시절, 이 책 한 권을 읽고 세상이 어떤 논리로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군사정권에게는 총보다 더 무서운 그 무엇이었다. - 박소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장)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39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사랑은 고통을 동반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지 않은가?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 사랑 때문에 자살을 택하게 되는 젊은이의 연애 이야기가 왜 금서가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자살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이 작품만큼 위험한 작품도 없으리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이 책은 1774년에 출간된 책이다. 출간 이후 라이프치히의 신학 교수들이 자살을 부추킨다고 이 책의 금지를 요청했고 시의회에서는 이를 만에 금서로 지정했다고 한다. 또한 1939년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정권이 '불명예스러운 작가'라는 이유로 괴테의 작품을 도서관에서 축출했다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펴내고 있는 세계문학전집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는 작품이다. -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40		제르미날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J'Accuse)'를 '로로르(L'Aurore)'지 실어서 드레퓀스 사건의 부당성을 고발한 에밀 졸라의 대표작. 노동자계급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최초의 소설로 탄광촌 노동자들의 비참한 모습과 저항, 투쟁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자연주의 문학의 걸작. 로마가를 리교회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작가의 사명감을 몸소 실천한 대가의 모든 작품을 금서로 지정했다. - 김정숙(마곡중학교 교사)
41		즐거운 사라	마광수	40대를 넘긴 이들은 이름을 들으면 '아하' 하는 감탄사와 함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마광수 교수의 소설책이다. 대학생 시절, 이 소설이 발간되고 선정성 논란이 일면서 '곧 판매 금지 조치'가 있겠구나 싶은 예감이 들 무렵, 우연히 지금은 없어진 종로서적을 들렀다가 신간매대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는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이 책을 샀더랬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가 이 책은 판금 조치를 받았고, 모든 서점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줄지에 '레어 아이템'의 소유자가 된 나는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친분 깊은 녀석들에게 이 책을 빌려주며 대여료로 라면 한 그릇 씩 뜯어냈고, 그렇게 한동안 귀하신 몸 대접을 받으며 '이동대본소' 노릇을 한 기억이 난다. 그렇지만, 이 책을 돌려줄 때 친구들이 전해준 답은 '별로 뜨거워지지 않던데' '신통찮더라' 일색이었다. 실은 나도 그랬다. 이 책이 담고 있는 '선정성'이 주는 쾌감보다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쾌감'이 훨씬 컸더랬다. 금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미학적 가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지금도 나는 <즐거운 사라>가 왜 금서가 되었는지, 마광수 교수가 왜 감옥살이까지 했어야 하는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 이계삼(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42		현기영	국방부가 이 책을 불온서적목록에 올린 이유는 이른바 '북한 찬양'문건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좀 더 살펴보면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제주4.3사건'인 것 같다. 작품 속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나오는데 4.3사건도 나오기 때문. 국방부가 4.3 항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민간인 학살의 원죄가 부끄러운 탓이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가슴 아프게 펼쳐지고, 때로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주인공의 삶은 가슴 아린 역사 속에서도 곳곳이 자라난다. 제주의 풀 한 포기마다 사연을 머금은 채 나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유년의 기억이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다. - 주상태(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 교사) 이 작품은 그릇된 역사가 빠뜨린 질곡을 헤쳐온 이들의 지난하고 뜨거운 숨결이 울울이 스며있는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이 북을 찬양해서 불온하다고? 말짱 헛소리이다. 반동적인 눈에는 이 뜨거운 진실 복원과 삶의 재현이 '불온'으로 읽힐지도 모르지만, 이 소설은 결코 그러한 '불온'에 갇히지 않는다. 피땀겨 사라진 기억들을 소환하는 저 애뜻하고 아린 마음들을 보라. 정말 정성스런 위로 아닌가. - 정우영(시인,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이 책을 읽은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 그러나 '살아서 박복했던 아버지는 그래도 죽음만큼은 유순하게 길들일 줄 알았나 보다.' 이렇게 시작되는 첫 문장을 읽고 한동안 먹먹했던 기억만큼은 또렷하다. 책을 읽는 내내 시선을 땔 수 없었고 한 권을 다 읽을 무렵 필력을 담고 싶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필사를 해보고 싶어서 도전해 본 유일한 책이기도 하다. - 이봉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
43		헨리 조지	1879년에 출판된 이 책에서 헨리조지는 토지사유제가 불로소득을 낳고 모든 불평등의 원천이라고 갈파한다. 구약성경의 희년사상에서 영감을 받았다.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불로소득인 지대를 전액 세금으로 흡수하는 토지지대세, 토지사유제와 지주계급의 철폐를 주장하는 이 책은 가톨릭교회와 일제가 한때 금서로 지정했다. - 곽노현(전 서울특별시교육감)

번호	도 서 명	저 자	추 천 의 말
44		노동자 전태일	위기철
			자기 생애 다 펼치지 못한 꿈과 벽처럼 둘러싸인 세상의 편견 앞에서 자신을 승화시켜버리는 힘을 가진 이는 많지 않습니다. 가난과 배고픔밖에 없던 이 땅에 사랑과 희생, 연대의 기적을 가르쳐준 전태일! 지금 우리가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앞선 시대를 불살랐던 청년노동자의 진실한 외침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정봉남(순천기적의도서관 관장) 국방부는 2008년 불온서적 23권을 발표했다. 2011년에는 2008년도에 발표한 23권에 '반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19권을 추가 선정하여 총 42권의 불온서적을 발표했다.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2011년 반자본주의 항목으로 금서가 되었다. 하루 대 여섯 권씩 팔리던 이 책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 어느 날은 하루 457권이 팔리는 기록도 세웠다. - 조월례(경민대학교 교수)
45		해방전후사의 인식	송건호 외
			80년대 후반기에 이 책을 접하고 나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온 한국사라는 것이 사실은 반쪽만의 역사임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다. 일제로부터 해방 전·후부터 시작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소 4대강국들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 결정된 것이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였고, 그 시기 그것은 다분히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기록치 않은 운명에 처한 국가의 국민으로써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던 책이었다. 20살 성인이 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성숙시키게 된 책이다. - 김자영(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관장)
46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1950년대의 시인 박인환은 시 쓰는 사람이 한 번 시적으로 '개종'하면 이전 작품들은 다 무효가 된다는 아리송한 말을 던져 친우이자 숙적이었던 김수영을 혼란스럽게 했다. 한 시인의 오늘이 어제의 작품세계와 심히 모순되는 행로를 그릴 때 그의 옛 작품들은 독자한테 감동의 효력정지 판정을 받아 마땅할까. 김지하의 옛 시집들에게 그런 처우는 부당해 보인다. 오늘의 현실을 싹틔운 저 70년대의 유사 공화국에서 가장 쟁쟁히 울린 저항자의 육성을 담고 있어서만이 아니고, 아직껏 알 수 없는 민주주의의 행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새삼 일깨워주기 때문만도 아니다. '삼백예순다섯 날 삼백예순다섯 편의 서정시를 썼어야 할' 시적 자아가 외부의 억압만이 아닌 내면의 어둠과 싸우며 "꿈만은 밝은 곳"을 향해 감행하는 고립무원의 포복이 독자의 넋을 동참시킬 힘을 잃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 시집들을 내다버릴 수 없는 이유의 일부다. 그 포복의 끝자락에서 시인과 독자를 기다리는 것이 가혹한 균열과 환멸일지라도. - 손경목(문학평론가)